

“본문과 교회와 세상”이라는 토대와 성서번역 - 나이다 이후의 관점에서

알루 모졸리*

시작하는 말

전 세계의 성서공회와 성서번역 운동에는 성서라는 본문이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서 본문은 읽는 이의 관점, 이데올로기,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읽혀왔고 또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읽기와 해석과 번역은 이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교회가 우선 성서공회 운동이나 성서번역 운동을 주도한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은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모든 그리스도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교회는 한 몸만은 아니다. 색깔과 조직과 모습이 때로는 조화롭지만 때로는 다양하여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스도 교회가 말하는 성서 본문은 보통 구약과 신약이라 부르는 책 모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회 공동체는 이 책 모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곧 하나님의 메시지는 팔레스틴에 살았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예언자 등을 통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한 이들이지만,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다.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권위가 있고 진실하고 믿을 만하며 언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성서의 기록은 어디서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마 5:18]. 하늘과 땅은 없어질 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막 13:31, 표준새번역 개정판]). 교회가 성서 본문을 받아들이고 믿지만, 교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성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¹⁾ 더구나 일반 사람들은 교회와는 아주 다르게 성서를 읽고 해석한다.²⁾ 이러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지역 번역 총책임자.

1) 성서의 권위와 신빙성과 영감에 대해 아주 잘 논의한 책으로 Paul J. Achtemeir (1980)를 보라.

2)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Wolfgang Iser(2000)나 Mikko Lehtonen(2000)을 보라.

한 상황에서 성서번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본 글의 관심이다.

본문 - 번역의 원문

성서 본문은 분명 옛 문헌으로, 다양한 상황과 시기와 문화와 언어와 종교 전통이 다른 여러 사람과 여러 그룹이 수백 년 동안 기록한 문헌이다. 이보다 더 복잡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및 일반인들이 해온 해석으로 그 층이 매우 두터워 뚫고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만화경 같이 현란한 해석과 신앙이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잘 알아 볼 수 없는 옷을 입고 공존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는 빨리 풀어내야만 한다. 물론 성서 전체를 몽땅그려 하나로 밝혀낼 묘안은 없다. 성서학자들은 일생 동안 이 일에 매달리지만 그 성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성서학 분야가 너무나 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섭렵하기에는 힘이 부칠 뿐이다. 지금은 세분화된 성서학 내의 모든 견해를 통합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성서고고학, 성서 본문비평, 성서 언어학(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구약학, 신약학, 칠십인역학, 성서 인류언어학, 성서지리역사학, 각 책 연구, 성서인물학 등 성서학의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각 분야에 덧붙여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복잡하다. 성서의 각 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의 특성과 독특한 재능으로 다양한 문학 양식과 이야기 방식, 또는 이야기나 시문 같은 여러 장르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삶의 시기와 문화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³⁾

본디 성서 본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무도 지금껏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다. 옛 성서시대에 여러 곳에서 본디 본문을 베끼고 또 베낀 것이 발굴되었을 뿐이다. 본문학자들이 지루한 작업과정을 오래 참으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덕분에, 우리는 그래도 그 본디 본문에 가장 가깝다고 믿어지는 성서비평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⁴⁾ 하지만 성서 비평본은 옛 문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John Barton. ed. *Cambridge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1998)과 Steven L. Mackenzie & Stephen R. Haynes. ed.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 To Each Its Own Meaning*(1999). 두 번째 책은 김은규와 김수남 역,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 대한기독교서회(1997년)를 보라(역자주). 또한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룬 Julio Trebolle Barrera. *The Jewish and the Christian Bible*(1998)을 보라.

4)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1992)와 Kurt Aland &

화와 전통과 종교에 뿌리를 둔 옛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왜 성서를 번역해야 하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성서라고도 부르는 구약은 옛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창 31:47, 렘 10:11, 스 4:8-6:18, 7:12-26과 단 2:46-7:28은 히브리어와 가까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은 이와는 달리 초대 교회에서 통용되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 성서를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칠십인역은 옛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이 성서본문은 풍요로운 북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남 대륙의 빈민가나 빈곤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번역자의 임무는 막중할 수밖에 없다. 성서가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읽어보지도 못할 책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서를 번역본으로 읽는다. 번역자들의 도움이 없다면,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의 언어로 성서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성서는 본디 본문과 얼마만큼 닮았을까? 옛 본문의 본디 뜻을 현대 역본에서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현 상황을 배제하고, 곧 우리의 실정과 필요성을 배제하고 이 옛 문헌을 읽는다는 것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얼마만큼 번역은 반역인가? 다시 말해 “뜨라뒤르 상 트라이르”(말고트)는 사실인가?⁵⁾ 이와 같은 수도 없는 질문은 현대 번역자와 포스트모던 번역자의 발목을 잡는 질문이다.

하지만 성서번역은 적어도 그리스도교회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 성서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중심을 차지하며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서는 교회의 토대이며 안내서이고 나침반이다. 성서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과 바른 설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참과 거짓, 바른 가르침과 틀린 가르침을 가려내는 척도이다. 성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중심을 차지한다. 성서는 소공동체 양육, 소그룹 및 개인 성서연구, 명상 및 묵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후 3:16-17(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표준새번역 개정판 - 역자주])과 같은 구절은 성서의 이런 역할을 분명히 말한다. 성서가 이렇게 교회의

Barbara Alan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1987)는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룬 개론서들이다.

5)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자문위원이던 Jean Claude Margot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Traduire sans trahir*(1979)란 제목으로 책을 썼다.

존재 이유를 말하고, 또 영성 양육과 성장 그리고 선교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⁶⁾

성서는 교회의 책이다. 그 어떤 교회도 성서를 빼놓고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적 사명과 선교를 수행할 수 없다. (어떤 교회는 실제로 성서에 기대지 않고도 존립하지만, 그리스도교회의 정경을 빼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통이 오래된 예전 중심의 북 대륙 교회에서도 성경은 필요하다. 또한 새로 생긴 오순절 계통의 남 대륙 토착 교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교회와 성서는 이렇게 애증의 관계라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자주의에 빠지는 위험이다. 성서가 말하려는 그 정신보다는, 건실한 해석 없이 문자 자체에만 매달리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성서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곳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광신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이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이든 교회가든 성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산재해 있다. 성서보다는 일반 신학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곧 신학교 교수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더 권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모두 버려야 한다. 성서를 존중하면서 신학계와 성서학계의 연구에도 귀를 기울이는, 중도적인 입장이 바람직하다.

남 대륙의 신생 원주민교회의 경우 성서번역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⁷⁾ 곧 원주민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면서 교회가 생긴 것이다. 신생 교회는 보통 선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관습과 가치에 매이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성서의 경우 선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원주민 언어로 번역된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주민 교회를 해방시키고 힘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자신들이 말하는 언어로 직접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서번역으로 또 하나의 오순절 운동이 태동한다. 신생 원주민 교회는 이렇게 성서의 권위에 기대어 선교사들과 대등한 위치에 선다. 또 선교사들의 성서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선교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원주민 교우들에게 힘을 주고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된 성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도구가 된다. 번역된 성서를 어디

6) A. O. Mojolar의 글 “The Bible - a Tool for Change, Renewal and Mutual Learning”(2002년 11월 18일-22일에 케냐 나이로비, 음바가티에서 있었던 OD 및 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라.

7) 예를 들어 David Barrett의 글 “The Spread of the Bible and the Growth of the Church in Africa”(UBS Bulletin 128호-129호 3-4분기, 1982/1984:5-18쪽) 또는 William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 Bible Translation in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1991. 제10장 “번역과 토착신학”)을 보라. Philip C. Stine.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 The last 200 Years*(1990)는 이 주제를 고무적으로 다룬다.

서든 성서로 생각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언어이든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번역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어떤 언어로 번역된 성서이든 믿는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 - 성서 본문을 맡은 이, 해석하는 이

교회는 성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서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성서를 맡은 이라고 생각한다. 곧 성서가 사라지거나 왜곡되거나 상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는 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성서본문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일에 오랫동안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에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또 바꾸지 않게 하려고 애쓴 것을 말한다. 이는 교회의 주어진 사명으로 매우 중요한 중추적 역할인데, 성서본문을 더하고 줄이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 자신들의 신앙과 가르침과 신조에 성서본문을 조율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줄인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파가 내놓은 번역이 이러한 번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정경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에는 몇 권의 책이 들어 있는가? 성경에 들어가는 책은 어떤 책이어야 한다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정경의 범위는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새로운 책이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결정은 단 한번으로 마감되었는가?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순서는 또한 어떠한가? 순서 매김은 정말 중요한 것일까? 순서도 단 한번의 결정으로 끝났는가? 순서를 다시 매기면 안 될까?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순서대로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 순서는 아예 고정된 것일까? 장 절 문제는 또한 어떤가? 장 절을 새로 매기면 안 될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장르에 따라 또 문학 구조와 기능에 따라 새로 매기면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누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곧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단 물건은 그의 책 『본문과 공동체 사이』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말을 한다. “...공동체는 자신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 본문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정경 속의 정경’을 말할 수 있다.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정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선택한다. 어느 공동체이든 정경 전체를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동체도 정경 속의 어느 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는 자신들의

선교정책과 정체성과 사회원칙을 세울 수는 없다. 물론 그들이 강조하려고 뽑아낸 부분이 다른 부분과 상치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을 바꾸고 바꾸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로 접어두고서라도, 공동체가 정경을 결정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⁸⁾

정경은 이러해야 한다고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의를 본 적은 이제까지 없다. 특별히 어떤 책이 정경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또는 어떤 책이어야 하는가? 그렇지만 누구나 수긍하는 책들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표준 그리스어 신약성서 27권의 책을 일반적으로 정경에 들어 있는 책이라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원하는 번역사업의 대본으로 사용하는 네슬-알란드판에 들어 있는 책들이다. 이들 27권 이외의 경우는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문제를 교조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몇 책을 더 집어넣는다. 도마복음을 신약 정경 속에 넣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이다. 히브리성서 39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반포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속에 들어 있는 책들이다. 책과 장 절의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다. 히브리성서를 따르는 전통도 있고 다른 전통도 있다. 여기에 다른 책을 덧붙이기도 한다.⁹⁾ 가톨릭교회는 히브리성서를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에 들어 있지 않은 책도 있다. 정교회 역시 칠십인역에 들어 있지 않은 몇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정경 문제는 한 개인이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같은 연합기관이라고 해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 그리스도교회 신앙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¹⁰⁾ 번역자들은 이 문제를 말할 수 없다. 번역자들은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다. 임무를 부여한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심부름꾼으로 번역할 따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성서 본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서를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 역할에는 어떤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지 곧 이른바 이단적인 해석인지를 판단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관심은 성

8) Don F. Morgan (1990), 16쪽.

9)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한 책으로는 Siegried Meuer. ed. *The Apocrypha in Ecumenical Perspective*(1991)를 보라.

10) Lee Martin McDonald.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Biblical Canon*(1988), John Barton. *Holy Writings, Sacred Text - The Canon in Early Christianity*(1977), C. Theobald. *Le Canon des Ecritures*(1990), Gerald Maier. Hrsg. *Der Kanon der Bibel*(1990)은 이 문제를 잘 논의한다.

서 해석이 역사 신조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곧 지금껏 신앙 공동체가 물려 받은 전통과 공식적인 교리와 신앙고백서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때로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을 통하여 지금껏 물려받은 신조나 선언을 고치고 바꾸어가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예로 개신교회의 개혁을 들 수 있다. 더 최근의 예로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2 바티칸 공의회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여러 각도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새롭게 읽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혁 및 갱신 운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새로운 성서해석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 또한 거꾸로 성서주석과 성서번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성서가 처음 번역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번역자들은 첫 신학자들이 된다. 신학 용어나 개념 그리고 예전용어를 수용언어로 새로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¹¹⁾ 처음 성서를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해석은 때때로 수용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 번역행위를 중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새로운 번역을 통하여 친숙한 본문을 새롭게 읽고 그 언어를 통하여 새롭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²⁾ 이렇게 번역행위를 통하여, 친숙하거나 진부한 용어를 새롭게 신선한 용어로 다시 설명하여 전통적인 교리를 새롭게 재해석한다. 따라서 번역자들의 임무인 성서번역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점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교회가 본문을 검열하는 이라는 뜻인가? 어떤 교회는 자신들을 바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그래서 ‘출판허가’(imprimaturs)와 ‘문제없음’(nihil obstats)이라는 말을 번역성서의 속표지에 명기한다. 어떤 교회는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출판허가를 명기하기도 한다. 읽을 독자들이 받아들일까 또는 승인할까 하고 지레 짐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신국제역』(NIV) 개정판이 가장 최근의 경우이다. 성차별 용어를 없애고 포괄용어를 사용하여 펴내고자 한 개정판의 경우 논란이 제기되어 아직 출판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읽을 독자들이 번역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교회 그리고 번역의 주체

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서를 번역한다. 곧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번역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대부분 이 때문에 성서를 번역

11) William A. Smalley(1991)을 보라.

12) Douglas Robinson은 그의 책 *The Translator's Turn*(1991:223-231)에서 이러한 현상을 ‘뒤집음’(subversion)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을 번역한다. 곧 번역을 위한 번역은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어떤 것도 생기지 않는다. 번역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번역은 어떤 시대에 왜 생겨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번역은 그 번역이 탄생한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번역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말이다. 번역행위를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번역은 실제로 독자들이 읽고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곧 그런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³⁾ 번역은 성서본문의 ‘소비자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들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과 교육 정도가 어떤가, 또 나이와 성별과 가치관은 어떠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뒤에야 번역 방법론과 전략과 절차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또 얼마만한 수준으로 번역해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상가 존 오스틴은 고전적인 그의 책 『말씀과 어떻게 일을 할까』(1962)에서, 말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유명한 말을 유행시켰다. 곧 격언, 성명, 선언, 약속, 서약, 저주, 인사 등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본문으로 곧 번역된 본문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확대시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점은 무척 중요하다. 새로운 번역을 주도하고 임무를 맡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 번역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자세히 살피고 결정하여야 한다. 곧 번역이 완성된 뒤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분명한 의도 없이 번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겨냥하여 펴냈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번역도 더러 있다. 이러한 번역은 성공한 경우라고 말하기 힘들다. 성공적인 번역이 되려면 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 어떤 독자들을 겨냥한 번역인지 분명하여야 한다. 곧 그 독자들의 특성과 가치 기준에 꼭 맞아야 한다.

유진 나이다와 찰스 타버는,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책 『번역의 이론과 실제』(1969)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곧 (1) “사용하는 언어의 문학 전통이 길고 또 성서를 한동안 읽어온 사람들 그리고 (2) 사용하는 언어의 문학 전통이 그리 길지 않고 성서 또한 번역되거나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번역을 바꾼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¹⁴⁾ 나이다와 타버는 또 이렇게 주장한다. “보통 세 종류의 번역 성서가 필요하다.

13) 번역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잘 개괄한 책으로는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1997)나 Lawrence Venuti. ed.(2000)의 221-232쪽에 실려 있는 Hans Vermeer의 글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을 보라.

14) 언급한 책의 31쪽. 이 책은 보통 TAPOT로 언급한다.

(1) 교회에서 예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용 번역(‘회중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식자층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어로 옮긴 전문가용 번역 그리고 (3) 글을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글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 ‘일상어’ 번역.”¹⁵⁾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부류, 곧 문학전통도 별로 없고 성서가 번역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이다와 타버는 이렇게 덧붙인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입말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때때로 소비자와 시장 조사를 통하여 독자들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낼 수 있다. 나이다가 글을 쓸 즈음에는 우선적으로 성서의 ‘일상어 번역’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말한 두 번째 류의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나이다와 타버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의 형태가 아니라 독자’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비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교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25살에서 30살까지의 독자가 사용하는 말이 더 나이든 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는 여성들이 쓰는 말이 남성들이 쓰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¹⁶⁾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번역을 ‘일상어 번역’이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번역을 선호해 왔는데, 주로 여러 성서공회에서 주도해 온 번역들이다. 이러한 나이다와 타버의 주장은 요즘말로 번역의 ‘스코포스’(skopos)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포스란 말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겨냥하느냐를 가리키는 말이다.¹⁷⁾

어떤 성서를 필요로 하는지 과학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곧 어떤 독자가 읽을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읽을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은 나이다와 타버가 말한 세 부류의 독자들 말고도 더 있다. 독자층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점이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곧 점점 줄어드는 자원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독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양한 종류로 점점 늘어나야만 하는 성서를 어떻게 만들 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5) 앞의 책.

16) TAPOT 31-32쪽을 보라.

17) Hans Vermeer가 앞서 인용한 L. Venuti(2000:221-232)에서 이 용어의 정의를 다룬다.

세상 - 교회와 본문은 무슨 관계인가

본문 - 교회 - 세상은 떼려 해도 뗈 수 없는 토대이다. **교회와 본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상과 관련이 없는 성서의 교회는 무의미하다. 교회는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 속에 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긴다.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받았다. 교회의 임무는 세상을 향해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본문**이라는 말만 하는 것도 적당치 않다. 성서 없이 교회는 세상을 제대로 만나 섬기고 돌볼 수 없다. 성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힘을 준다. 분명한 것은, **본문과 교회와 세상**이라는 세 토대는 한 묶음이라는 사실이다.¹⁸⁾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교회는 특정한 상황을 살고 특정한 언어를 말하며 특정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곧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라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 한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문화를 드러내며 어떤 인종이나 국가의 일부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두를 뛰어넘지만 말이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곧 세상의 모습에 따라 교회도 달라진다. 교회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생김새가 달라질 것이며, 그 정체성 역시 달라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잇대어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린다. 생명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와 화해와 조화로운 삶과 포용의 상징이기도 하다. 교회가 자신과 그 사명에 충실하다면 또는 그 가르침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은 문화와 문명, 종교와 상황, 사람과 말, 다양한 가치체계와 전통이 뒤섞여 있는 곳이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성과 다원성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모두를 염두에 두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실을 함께 꿰매야 한다. 곧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교회의 성서는 인류 보편적이며 전지구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누리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18) Francis Watson은 그의 책 *Text, Church and World -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1994)에서 <본문-교회-세상>이라는 토대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하고 외쳤습니다”(계 7:9-10,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서번역은 언어와 문화,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이다. 성서본문은 먼 옛날과 현재를 잇는 다리이다. 번역은 단지 본문을 옮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세상을 옮기는 일이다. 한쪽 발은 원문의 세상과 문화와 언어 위에 굳건히 세우고, 다른 쪽 발은 번역어의 세상과 문화와 언어에 굳건히 세우는 일이다. 유능한 번역자는 두 세상과 문화와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유능한 원문 주석가이어야 하고 모국어의 문화에 정통하여야 한다. 성서 속에 스며 있는 언어와 문화는, 믿는 이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같은 문화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언어와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번역이든 그 문화권의 일부일 따름이다. 곧 번역이란 단지 어떤 문화권의 한 표현일 뿐이다.

어떤 본문이든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헌을 내놓은 이들과 그들의 신념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관습과 예전과 전통과 가치와 삶의 방식과 역사와 믿음 체계와 해석 방식을 따라 성서 본문을 읽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사회의 일원이다. 따라서 문화적 관습과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화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나름의 가치관과 인종적 태도와 문화적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교회의 가치와 이상을 뒤틀고 왜곡하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문과 모국어의 세계를 둘 다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원문을 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앙공동체 내에 있는 독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여야만, 번역을 읽을 독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곧 그들의 언어, 문화, 가치, 전통, 이데올로기, 타 종교, 정치, 경제 등을 잘 알 수 있다.

<본문과 교회와 세상>이라는 토대와 성서번역의 의미

앞서 말한 것을 쉽게 말하자면 성서번역은 <본문-교회-세상>이라는 토대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주도하고 임무를 맡긴 번역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비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번역을 하는 경우, 곧 일반 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번역은 이 도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라는 말 대신 **를 집어넣어 <본문-**-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는 이가 누구이든 이 **속에 그들의 종교나 신앙체계를 나타내는 말을 집어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서번역자는 교회의 심부름꾼이다. 또는 번역 기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다. 번역자들은 기획 후원자들의 지시사항, 곧 번역 의뢰사항(스코포스)을 우선 받는다. 후원자는 번역이 이래야 한다고 미리 주문을 한다. 어떤 독자가 어떤 용도로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준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읽을 것을 예상한다고, 기획이 시작되기 전에 말한다.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원 제품에 충실한 최상의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후원자들이 요구한 스코포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¹⁹⁾

성서번역자는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고프리 새뮤얼슨-브라운은 상업적인 번역에 대해서 주로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는 대학에서 현대어나 현대언어학으로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번역학으로 대학원 과정을 밟는 이들을 위하여 쓴 글도 들어 있다.²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자는 모국어를 아주 잘 알고 또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원문이면 어떤 본문이든 얽히고 설켜, 복잡하고 미세한 그 뜻과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원문의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모국어로 씌어진 문학이면 어떤 것이든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번역자는 원문과 모국어의 세계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야 한다. 아주 어려운 일이기에 각국 성서공회에서도 이러한 번역자는 그리 많지 않다. 번역자가 갖추어야 할 모국어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서번역학 학술지를 훑어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이다. 모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못하는) 이가 번역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중번역 문제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번역문에서 옮기는 것보다는 원문에서 직접 옮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다. 번역자가 여러 자료를 옆에 두고 성서언어를 섭렵하려고 훈련받았을 때 이러한 난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언어 역시 다른 언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19)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Nord나 Vermeer를 보라.

20) Geoffrey Samuelsson-Brown. *A Practical Guide for Translators* (1993), 6쪽을 보라.

성서번역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이차 자료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잘못 읽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차 자료라 할 수 있는 이중 번역문에 들어 있는 왜곡과 뒤틀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문화나 언어와 가까운 언어로 옮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원문과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²¹⁾

원문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여 원문에서 직접 옮기는 일이야말로 원문과 번역문의 문화를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프리카 성서번역 기획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번역자들은 성서 문화가 아프리카 문화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유럽 언어로 쓰여 있는 이차 자료를 읽는 것보다 성서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한다. 곧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성서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성서의 메시지를 나의 문화로 만들고 토착화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이는 성육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토착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는가! 이 점이 바로 번역 방법론 및 접근과 만나는 연결점이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번역 행위는 모든 도구와 통찰을 동원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인성, 사람, 문화,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산물인 문헌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²³⁾ 이렇게 볼 때 번역이란 한 문헌에 들어 있는 말과 문장 그리고 이야기 단위와 문헌의 유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문헌이 나온 그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 본문은 어떤 정황에서 탄생하였는가, 또 그 사회의 문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문화에서 그 본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어떻게 이 문헌을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모두 제대로 이해했을 때, 주어진 한 본문을 잘 알 수 있고 다른 언어로 옮겨 그 문화 속으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이다. 번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번역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와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베이즐 하딤은²⁴⁾ 비교 분석, 사회언어학, 자료언어학, 본문언어학, 심리언어학, 문화학, 여성학, 문학을 그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반면, 모나 베이커는²⁵⁾ 심리학, 정보이론, 문학이론, 인류학, 철학, 문화학을 집어넣는

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A. O. Mojola. "Bible Translation in African Christianity." AICMAR Bulletin 1(2002):1-14를 보라.

22) 또한 Andrew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the Faith*(1996), 27-28쪽을 보라.

23) David Katan. *Translating Cultures*(1999)와 Basil Hatim.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1997)와 Eugen Nida. *Message and Mission*(1960)을 보라. 더 자세한 논의는 Andrew Walls. *The Cross 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 Studies in the transmission and appropriation of the Faith*(2002)를 보라.

24) Basil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2001), 80-84쪽을 보라.

25)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1998), 279쪽.

다. 베이커는 이렇게 말한다. “번역학은 어느 한 분야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분야는 지금 존재하는 어떤 분야를 다 포함한다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²⁶⁾

이러한 여러 분야가 서로 제휴하는 다분야 상황에서 번역도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언어학적인 접근, 문학적인 접근, 기호학적인 접근, 해석학적인 접근, 형식주의적인 접근, 기술적인 접근, 체제지향적인 접근, 탈식민주의적인 접근 등을 말한다. 필자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과 같다.²⁷⁾

“성서번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독자들을 예상하고 번역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그의 방법이 교회적이든 또는 다른 방법이든 그 방법이 문제이다. 번역학 내의 다분야간 상황에서 어떤 이론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말이다. 어떤 방법을 따라가든 그 통찰과 생각이 유용하다면 어떤 것이든 차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그 어떤 자원이나 자료나 정보를 다 동원하여, 애초에 세운 번역 기획을 따라 번역을 내놓거나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하고 비평적인 절충주의적 입장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문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서번역은 궁극적으로 본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임무를 맡긴 교회를 섬겨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번역자는 최상의 도구를 활용하여 최상의 번역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언어로 읽을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번역을 하도록 임무를 맡긴 신앙 공동체와 **교회**라는 토대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선 채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원문과 번역문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번역: 이환진)

26) 앞의 주.

27) 2000년 말라가에서 있었던 UBS TTW에서 발표한 Aloo Osotsi Mojola, “Rethinking the Place of Nida’s Theory of Translation in the New Millennium: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 A Critical Assessment”, 18쪽을 보라. 이 글의 요약판이 왕대일 편집 2000:277-304쪽에 실려 있다.